

지역 소식



강화한다 –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 성전 방문 세미나

매월 한 번씩,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서울 성전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고,
청소년 회장단에서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 연재 기사는 2016년 지역 계획의 비전과 목적을 주제로 한다.

도 요일 새벽,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을 태운 버스가
컴컴한 고속도로 위를 달린다.
한 달에 한 번,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성전으로 향한다.
성전 의식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매월 성전에서
함께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받고, 의식이 끝난 후
신촌 와드에 모여 세미나 및
활동에 참석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월례 행사는 올해로 120회를
맞이했다. 당시 청소년을
강화하고자 하는 청주
스테이크 회장단의 뜻에
따라, 전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최수영 형제가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부름을 받으며 시작된 일이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영적, 현세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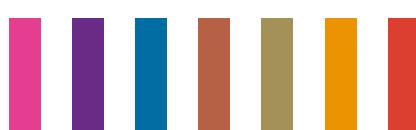
사랑한다
드높인다
단순화한다
힘써 노력한다
강화한다
권유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고민했고, 그들의 생각은 곧
성전으로 좁혀졌다. 매월 성전
의식을 받고, 함께 모여 서로를
강화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이 성전 의식과 세미나의
취지다.

이 모임을 시작했으며,
최근 스테이크 청녀 회장에서
해임받은 강명옥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임의 목적은
청소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청소년들이 매월
성전에 참석하기에 합당하도록
표준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는 스테이크 내 청소년들

간의 우정이 증진되고, 세미나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성인들을
통해 역할 모델을 찾으며, 청소년 개인이 영적, 지적, 사회적인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적으로 강화함

교통편 제공 등 청소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점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오해리 자매(18세)는, 매달 참여하는 성전 의식과 세미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매달 충전소에 오는 것 같아요. 성전 의식과 세미나에서 충전한 영적인 영양분으로 다음 한 달을 사는 데 도움을 받아요.”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성전 의식과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강화된다. 4년 넘게 성전 방문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이준영 형제(16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사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규철 형제를 꼽았다. “아버지가 20대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세미나 모임에서 자세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를 다니면서 받으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고,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우정을 강화함

처음 세미나를 시작할 때엔 훌륭한 연사들의 말씀과 간증이 주요 내용이었다. 청소년 회장단은 청소년이 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해 보길 원했고, 점차 그룹 데이트 연습, 합창, 경전 실물 공과 및 활동, 대학 탐방, 직업 탐구, 공연 감상, 가족 역사 센터 방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표준 활동 등 세미나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청주 스테이크의 지역 경계가 넓어 자주 모이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매월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비슷한 신앙을 지닌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에게 배우고 우정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인 엄우림 자매는, “세미나는 마치 놀이터 같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장소에 모여서 어울려 놀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친구들과 진지하고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라고 전했다.

강명옥 자매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우정이 청년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선교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대학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도록 서로 돋는 모습을 목격한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현 형제는, 세미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는 ‘포스트잇(붙임쪽지)’ 같아요. 공책이나 책에 보충 설명을 적을 때 포스트잇을 쓰는 것 같아요. 성전에 오는 게 주목적이지만, 세미나는 성전 방문에 의미를 더해줘요.” ■

충주 와드 이종욱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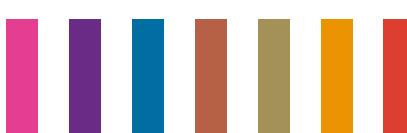
저도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으로서 매월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90명의 조상분들을 위해 대리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로서, 매월 둘째 주에 충주 와드 청소년들과 교회에 모여 FamilySearch.org 웹사이트에서 조상의 이름을 입력하고 의식을 준비하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을 돋는 것도 재미있고, 청소년들이 가족 카드를 가지고 성전에 가는 걸 보면 괜히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부름을 받고 봉사하며 저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역사 상담자로 봉사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15년 동안 연락이 달지 않았던 한 친척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외할머니 집안의 족보를 찾지 못하셨는데 그 친척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족보를 빌려오는 길에,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가족 역사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봉사하며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앞쪽 사진: 성전 의식에 참여한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들
아래: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 세미나 사진들





구원의 계획에서 발전하며 영의 인도를 받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산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스코트 디 와이팅 회장
지역 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사고 방식과 통찰을 이 연재 기사에서 살펴본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드높인다
단순화한다
힘써 노력한다
강화한다
권유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편집자) 질문: 지역 비전의 첫 문장은 지역 계획에서 기초이자 전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문장에 대해 와이팅 장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비전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목표를 교리로 받아들이더라도,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와이팅 회장:

“**G**리스도의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침수로써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성신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부푸는 씨앗 = 느낌

앨마는 (신앙의) 씨앗이 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¹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기 전에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저는 포함해 어느 누구도 침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 배우면서, 저는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통해 앞으로 더 큰 이해력을 얻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회원들에게 그 느낌을 항상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지식보다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단순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느낌을 통해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지식이 커져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성신을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을 받으시라”라는 생소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성신을 그대에게 인봉하노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라도 성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신을 받겠다고 여러 차례 결심해야 합니다.

회원으로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할지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성신을 받게 될까요?” “제 행동이 오늘도 성신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내 보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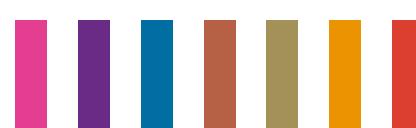
우리가 삶에서 성신을 느끼고, 성신의 임재를 느낄 때, 성신은 우리가 삶의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성신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줍니다.² 또 성신은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³ 성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성신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신을 느끼면, 신회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더 가까워집니다.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더 가깝게 되면, 평화를 느끼며,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은 복음을 통해 오며,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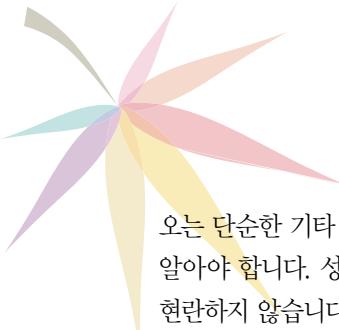
질문: 우리는 어떻게 영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생활을 단순화해서 영을 초대함

현재 매우 분주한 세상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 음악은 아주 요란합니다. 전기 기타가 있고, 드럼과 번쩍이는 조명,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아주 흥겹습니다. 이런 음악을 통기타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와 비교해보십시오. 그 음악은 부드럽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열광적인 록 콘서트 같은 세계에 살지만, 우리 삶에서 성신을 통해





오는 단순한 기타 선율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신은 요란하거나 현란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실제로 우리는 영을 초대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경전을 통해 영을 초대함

경전에는 조용히 앉아 성구에 대해 깊이 생각한 뒤에 계시를 받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편은 죽은 자의 영에 대해 선지자 조셉 에프 스미스가 받은 계시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계시를 받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일천구백십팔년 시월의 셋째 날에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내가 나의 방에 앉아 경전을 깊이 생각하며, ...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⁴ 선지자는 위대한 시현을 봤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성구를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몰몬경을 읽을 때, 저는 “몰몬은 왜 이것이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때때로 한 구절을 읽고 30분이나 한 시간 동안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더 많이 읽을 때도 있습니다. 경전 읽기에는 끝내기란 없기 때문에, 제 목표는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전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제 목표는 경전을 읽을 때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성신을 지니면, 경전을 읽으며 배울 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배우는 중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생활에 영을 초대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 계획의 완전한 교리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할 때,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면서, 여러분은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말고도 구원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 해의 왕국에는 세 하늘 또는 세 등급이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리와 성약 13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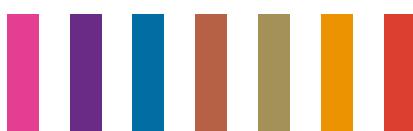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느냐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⁵ 이것이 구원의 계획에서 최고의 교리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포함해 성전의 모든 성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로서 해의 왕국의 세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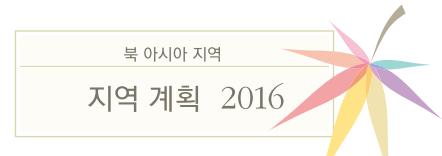
구원 의식을 마침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⁶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 즉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역 계획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을 단순화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는 복잡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성전에서 이뤄지는 구원의 모든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권고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해의 왕국의 셋째 등급, 즉 가장 높은 등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이 누군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 힘써 노력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느 젊은 남녀에게나 아주 멋진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역 계획의 여러 부분을 이 노력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성전 결혼을 위해 스스로 준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드높여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드높여야 합니다. 성전의 성스러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선택한 배우자에게 인봉되는 자신의 모습을 봄아 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성전에서 인봉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이 20대 중반에 다 끝납니다. 이런 점이 늘 제게 경이로웠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아주 젊은 나이에 모든 의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성전 성약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성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안식일에 초점을 더 맞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자마자, 다음 일요일에 다시 성찬을 취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찬을 취하기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명 및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거래할 때 정직합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러분은 성전 성약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면, 우리는 침례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포함해 우리의 모든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 생각해보면, 성찬은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여러 번 행하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다른 모든 의식은 자신을 위해 한 번만 한 다음에, 죽은 조상을 위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반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한다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하는 것이며, 그렇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 죄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영혼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개종이 더 깊어집니다.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완성돼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심오하며 지속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단계

힘써 노력한다는 말은 목표를 향해 일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개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이나 개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개인이나 부부, 가족으로서 더 나아지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경전과 선지자들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약한 점과 힘들어하는 점을 압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단계를 알고, 그다음에는 그 단계를 따르려 노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결혼은 기회가 있다면,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 비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는~”이라는 소개 문장을 둔 까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이 지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

1. 앨마서 32:28~43
2. 교리와 성약 6:23
3. 교리와 성약 9:8~9 참조
4. 교리와 성약 138: 1, 11
5. 교리와 성약 131:2~4
6. 요한복음 14:15

“드높인다”



페이스북 캠페인



- 여러분의 게시물(이야기, 사진, 동영상 등)은 지역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 게시물 끝에 "#지역계획2016"을 추가하십시오.
- 당첨된 분들께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드릴 것입니다.
- 당첨 상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립’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김오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자립 담당)



과 거의 서울 강서
스테이크와
인천 스테이크가
새로이 통합되고
역원들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인호 스테이크 회장님을 통해
주어진 임무는 “회원들을 돋기 위한
자립 지원 계획안”을 구상하고, 그것을
스테이크 역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실직하신 회원들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다른 직장을 소개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돋는 일이 자립의
우선순위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자립지원서비스에서 보내온 안내문과
기타 관련 자료 그리고 교회 지침서 등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자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이
아닌 건실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대비하여 독신성인 이상의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의
위임을 받아, 자립 교육에 참석할
대상자들에게 자립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자립으로 향하는
길’ 워크숍과 주일학교에서 ‘나의 기초
(12주)’ 과정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와드에서 주일학교 과정으로
‘나의 기초반’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에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독단과 신권지도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에 스테이크에서는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교육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감독님들이
동의하고 결심하시면서 자립을 위한
노력이 와드 단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수가 적은 와드에서는 진행자를
부르고 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역 회장단의 지침에 순종하고
스테이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독님들이 온전히 이해하였기에,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각각의 와드 상황을
고려한 자립 프로그램이 지혜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립’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어떻게 하면 감독님들을 도와 와드에서
자립이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며칠
동안 고민하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서울 서 스테이크는
주일학교 과정으로 ‘나의 기초반’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대부분의 와드가

12주 과정을 끝내고 다시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에서는
취업, 창업, 교육의 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립의 첫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추진해 나아가 다른 스테이크나
지방부들처럼, 우리에게도 2016년은 “자립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회장단께서는 자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감독님들이 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의가 강하시기에 힘이 솟구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업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계시로 주어진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세적인 자립만이 아닌
영적인 자립도 동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영구 교육 기금 대출 신청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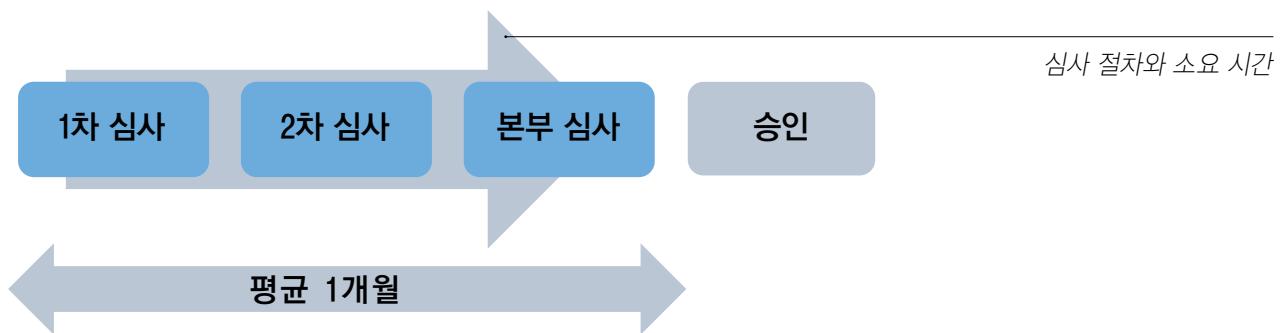
영구 교육 기금, 2016년 4월 1일부로 한국에서 시행

자립 지원 서비스

북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지난 2016년
4월 1일부로 ‘영구 교육 기금’ 대출
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부 주도의 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비 대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우리나라지만,

교회가 시행한 이 ‘영구 교육 기금’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어려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실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자립과 상환의 의지가 확고한’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영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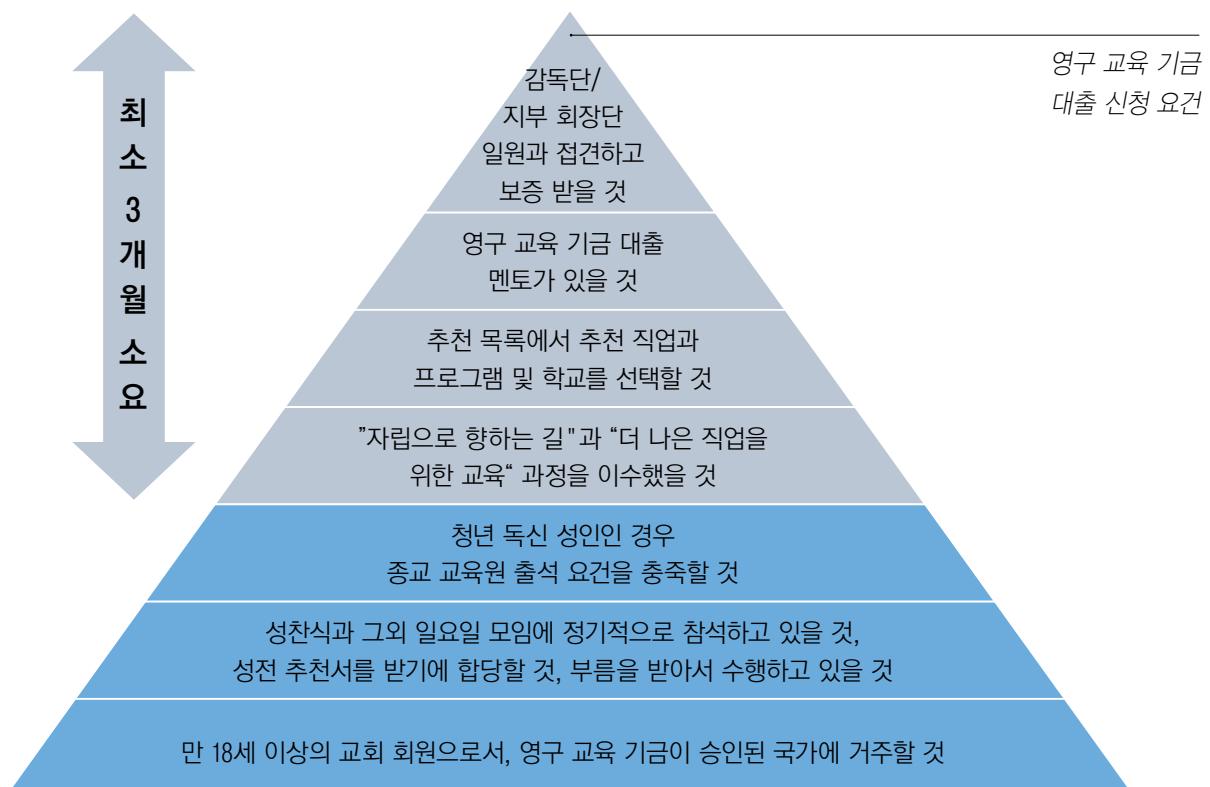


'기금'은 대출 제도이면서도 특색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충실햄' 성도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나 소속 와드 감독단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오른쪽의 온라인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 대출 신청 요건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역시 질문은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나 감독단에게 할 수 있다. ■

1. <https://www.lds.org/topics/pef-self-reliance?lang=kor>
2. <http://www.lds.or.kr/한국자립지원서비스>



여러분의 기술 전문가를 격려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스테이크/지방부(이하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북 아시아 지역 ICS

여러분은 아마 스테이크 회장과 회장단 보좌는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스테이크 집행 서기와 스테이크 서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스테이크에 알아야

할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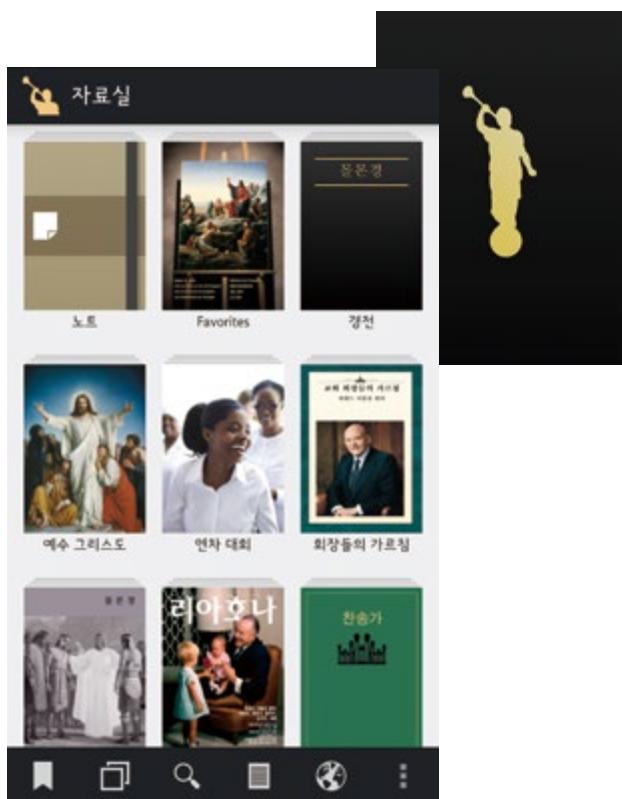
있습니다. 바로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기술 전문가는 복음과 관련된 용도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는 스테이크 내의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을 돋기 위해서 스테이크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12세 이상의 남성 또는 여성�이 이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집회소에서의 위성 및 웹 방송



기술 전문가는 현지 집회소에서 스테이크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이 스테이크 센터로 가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해줍니다. 집을 떠날 수 없는 회원들은 이제 방송으로 스테이크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스테이크 센터로 가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센터에서 먼 곳에 산다면, 이동 시간과 경비를 아끼고 현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말씀을 주제로 토론하고 계획하십시오.

경전 및 교과 과정 소프트웨어 설치

기술 전문가는 경전과 교회 교과 과정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공과 교재에서 경전, 교회 잡지 및 미디어로 빠르게 이동하여 공과 내용을 따라가고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공과 교재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집회소 기기 지원

기술 전문가는 또한 집회소의 음향 시스템, 프로젝터, 모니터와 복사기 및 컴퓨터 사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어떤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기술 전문가에게 전화하십시오. 기술 전문가는 일요일 모임을 마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내고 안식일 이후에 장비를 수리할 것입니다.

화상 회의

서로 먼 곳에 사는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는 기술 전문가에게 인터넷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를 사용하면 비싼 이동 경비와 회장단 모임과 보조 조직 모임을 여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 모임을 더 자주 갖는 한편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공과에서 미디어 자료를 사용함

만일 교사 부름을 받았다면,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과 시간에 교회 비디오와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원의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교사는 시각 자료도 함께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이나 지도, 낱말 카드 및 그 밖의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개념을 나타내 보일 때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70쪽)

LDS 미디어 자료실에는 복음 공과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는 더 나은 공과를 위해 어디서 미디어를 받고 어떻게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의 활용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인 lds.org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lds.org 계정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계정으로 와드 및 스테이크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lds.org 계정으로 공과 일정과 연락처 정보, 캘린더, 현금 정보(주: 현금 정보는 현재 미국 내에서만 사용 가능)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는 와드 및 스테이크의 다른 회원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와 사진 변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설정을 하면서 관심 있는 교회 정보에 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와 친숙해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식이 풍부하며,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부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돋고자 합니다. ■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01 강호 형제(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다른 부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 역시 교회의 부름입니다. 다만, 이 부름은 방송과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자질은 관리 본부에서 시행했던 교육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갖출 수 있습니다. 방송 장비가 막 갖춰졌을 때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당황했지만, 몇 번의 훈련을 통해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의 주거 지역은 용산에서부터 파주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파주에 사는 몇몇 회원들은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며, 때로 지각하기도 하고 교회에 도착할 때쯤이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됩니다. 이동 거리에 따른 피로감은 스테이크 모임의 경건성을 해칩니다. 웹 방송을 통해 각 와드에서 모임에 참석하면, 스테이크 센터에 가는 것보다 더 편안히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원들이 영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하여 고양되도록 돋습니다. ■



정승영 형제(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2015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에서 처음으로 웹 방송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약 30분을 준비 시간으로 계획했지만, 모두 기술에 서툴러서 그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회는 시작했음에도 몇몇 와드가 방송 접속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방송 송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각 와드에서 빗발치던 문의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진땀을 뺐지만, 회원들의 격려와 위로에 힘이 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 부름을 통해, 2016년 지역 계획의 ‘드높인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동 거리 문제로 모임에서 소외된 회원들이 각 와드에서 모임에 참석하여, 그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회원들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웹 방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지역의 기술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회원들께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FSY 대회를 위한 준비: 표준 그리고 가족 역사 사업

FSY가 다음 달인 7월 말에 열린다. 대회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FSY 준비위원회

FSY 까지 두 달, 남은 시간 동안 대회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의 표준을 높이고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표준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배우고 함께 실천해 보자.

1. 표준을 높게 유지함

전자 기기 사용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문명의 축복들을 받고 있다.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도구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영적 유혹이 될 수도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는, “기술적 도구들은 악마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임수의 거미줄로 여러분을 유인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려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씀했다.(2009년 4월 연차 대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런 잘못된 기술의 사용으로 교회 내에서 ‘영원한 관계’를 등한시하여 결국, ‘소중한 인간관계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며, 스스로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볼 것을 권고했다.(2014년 8월 19일,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대학교에서 열린 교내 교육 주간 중에 전한 말씀)

1.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 사용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신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게 합니까, 아니면 성신의 동반을 방해합니까?
2.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 줍니까, 아니면 제한합니까?

FSY 대회 기간 동안 스스로 스마트폰이나 전자 기기 사용을 절제하기 위해, 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본다. 또한, 부모와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현명하게 전자 기기를 사용하도록 대회 전 그들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다.

복장과 외모

우리의 복장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낸다. 우리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전달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영을 동반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또, 너는 네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 네 모든 옷은 겸소하게 하며, 그 아름다움은 네

자신의 손으로 일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라. …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청결한 가운데 행할지니라.”(교리와 성약 42:40~41)

엔 엘돈 태너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정숙한 복장은 생각과 마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또한 정숙한 복장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정숙함은 겸손, 점잖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리의 일관성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부모, 교사 및 청소년들이 복장과 개인적인 외모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함께 토론하고, 이를 선택의지를 통해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그로써 의를 선택하도록 합시다.”(친구가 친구에게, 엔 엘돈 태너 회장, 친구들, 1971년 6월호, 2쪽)

본부 청녀 회장단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는 단정함의 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1. 단정함은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가능하게 한다.
2. 단정한 외모와 행동을 하면 세상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
3. 단정함은 우리가 “어느 때에나 … 하나님의 종인이 [될]”(모사이야서 18:9) 수 있게 해준다.

친구

나는 대다수의 또래 친구들이 권하는 표준과 문화를 쫓는가? 아니면 높은 표준과 문화를 수호하며 의로운 영향력을 주는가? FSY에서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높은 표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지는 마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6쪽.)

본부 청녀 회장으로 봉사했던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는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것 보다, 친구가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또한, 진정한 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높아지도록 영향을 준다.
2. 청남들은 서로 명예로운 선교사업을 준비하고 봉사하도록 돋는다.
3.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돋는다.

돌튼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그분의 복음을 나눈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로 모여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2. 가족 역사 사업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예비 의식, 앤다우먼트 및 기타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에 참여한다. 현재 한국의 후기 성도들도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청소년의 참여율은 5.8%를 기록하고 있다.(2015년, 12~17세 한국 후기 성도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FSY를 준비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청소년과 부모, 지도자는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강조 사항 중 하나인 가족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2월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RootsTech 가족 역사 대회)

찾기

“찾기란 FamilySearch.org 웹사이트나 나의 가족: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이야기들 소책자를 이용하여 한 명 이상의 조상이나 그 후손의 이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가져가기

“그런 다음 이 이름들을 본인이 직접 성전에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가십시오.)

가르치기

“마지막으로, 똑같이 하도록 이 과정을 가족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

역사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쿠 장로는, “죽은 자를 위한 이 신성한 사업에 참여하면 산 자의 삶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결심이 강화되고,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이 함께 더 가까워지고 와드와 스테이크가 강화됩니다.”라고 말씀했다. 쿠 장로는 다음의 단순한 세 가지 단계를 소개했는데, 이는 회원들이 이 사업에 쉽게

복음 생활을 자랑스럽게 느끼다

SMYC 참가자 유지선 자매

서울 선교부 전임 선교사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성장했지만, 큰 확신에 차 있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였던 나는, 때로 교회의 표준이나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201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SMYC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과연 이 한국 교회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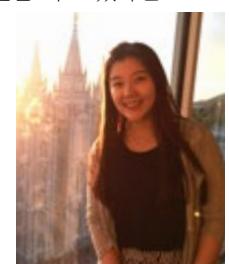
SMYC에 참석해서, 같은 조의 청녀들과 복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의 간증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다. 나처럼 학교에서 혼자 회원인 친구들도 많았고, 우리는 서로의 상황과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하고 서로의 간증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는 복음 생활이 자랑스러워졌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높은 표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성신이 돋는다는 것 또한 인식했고, 대회 기간 동안 영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내게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SMYC를 통한 축복은, 대회 기간 동안뿐 아니라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스스로 경전을 읽으며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자라났고, 복음에 대한 간증이 점점 커졌다.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선교 사업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 나에게 SMYC는,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영을 느낄 수 있던 소중한 기회였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올해에는 FSY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한국 성도의 소리

빛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방편

소방 호스를 붙잡으며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도원 형제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소 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나의 첫 근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역인 성동구의 성동 소방서였다. 소방대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이 그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다. 일을 시작하며, 평균 매일 3건 이상의 화재와 수없이 많은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동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수동의 한 실태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투입된 적이 있다. 공장은 지하에 있었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실내에서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불꽃이 있을 때는 그나마 주변이 보였지만, 화재가 진압된 후에는 연기만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공기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쉬고, 가지고 들어온 소방 호스를 역으로 따라가며 외부로 향했다. 당시 공기호흡기의 사용 가능 시간은 지금의 50분보다 훨씬 적은 약 20분이었다. 어둠 속에서 소방 호스를 더듬어 나갔지만,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축 처진 소방 호스를 따라 걸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호스를 놓고 뛰어나간다면 방향을 잊고 오히려 내부로 더 진입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기 잔량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계속 소방 호스를 따라 걸어갔다. 공기가 떨어져 숨이 꽉 막히던 순간, 선배가 나의 뒷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 주었고, 나는 세상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우리 삶에 비유하고 싶다.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소방 호스는 리하이의 시현에 나오는 쇠막대, 즉 경전과 같다. 어둠 속에서 날 구한 선배는 말 그대로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료들에 비유된다.

우리 자녀가 세미나리를 시작할 때, 과연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4년간의 세미나리 과정은 아이가 구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 아이가 쇠막대를 더듬으며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아내와, 세미나리 교사님은 아이를 붙잡아주고 빛으로 이끌어 주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재와 구조 구급 현장에 출동하고, 목숨과 재산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이



소방관 실험 : 어법구 - 사진: 정도원 형제 오른쪽 사진: 배동수 사진

일어나기도 하며, 삶은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여러 유혹이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한다.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서로를 강화해야 하며, 밝은 빛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경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도 말이다. ■

새로 부를 받은 지역 칠십인

영감과 인도에 따라 신앙으로 나아감

배동철 장로는 201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북 아시아 지역의 지역 칠십인으로 부를 받았다.



배 동철
장로는
1962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다.
조상들은 조선
초기부터 500년
이상 황해도

지방에 대대로 거주한 집안으로 부친은 한국전 당시 남한으로 탈출한 난민이었다.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대학 입시 준비 중이던 어느 나른한 봄날, 남산 도서관 앞에서 선교사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1982년, 배동철 장로는 침례를 받았다. 당시 지혜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에게, 인내심 많은 선교사가 꾸준히 권유했고, 마침내 배동철 장로는 참된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선교사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회원이던 시절, 교회에 가지 않았던 안식일 오후, 청년 독신 회원들이 집에 찾아왔다. 배 장로는, “그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또 단체로 찾아 오겠구나 하는 두려움,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집까지 방문하는 그들에게서 느낀 사랑. …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후에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라고 말한다.

배 장로는 부산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서울 스테이크 회장, 한국 홍보위원회 위원장, 가족

역사 지역 고문 등으로 봉사했다. 그는 군복무 시절 같은 부대에서 제대하는 모든 동료 장병들에게 몰몬경을 선물로 주었을 정도로 선교 사업에 열정적이었다. 이때 몰몬경을 구입하여 군부대로 꾸준히 보내준 한 회원은 이후 배 장로의 아내가 된 박순명 자매였다. 배 장로와 박 자매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배 장로는 오랫동안 기업인으로 일해 왔다. 그는 이베이온션에서 상무를 역임하고 현재 새턴 사(社)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할 당시 결혼하여, 대학 공부, 가정 생활, 학비와 생활비 벌기라는 삼중고(三重苦)를 겪었으나, 주위 회원과 지도자들의 지원과 사랑, 격려가 있었기에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봉사할 때, 단한 마음이 열리고, 영이 고양되며,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은 바로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침례를 준 선교사의 사랑, 집으로 찾아온 회원들의 사랑, 그리고 헤아릴 수 없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회원들의 ‘순수한 사랑’이 저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족한 지혜를 얻고 의로운 판단에 필요한 영감을 얻는 방법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중요한 배움입니다. 주님의 영감을 받는 방법은

매일 경전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필요한 영감과 인도를 받습니다. 그 느낌을 바로 기록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¹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선지자께서는 출생과 국적이 주어진 나라에 시온을 건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²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이스라엘의 집합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등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 시온 건설에 힘쓸 때 우리는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 보이더라도, 주님이 명하신 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은 길을 미리 예비하지 않고는 명하시지 않으시며,³ 명하실 때는 이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

주

1. 사도행전 17:26
2. 멜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반복된 출애굽”,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30쪽 참조
3. 니파이전서 3:7
4. 니파이전서 5:8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 자매 15명 / 장로 12명



권경준 장로



김동건 장로



김민수 자매



김수겸 장로



김요안나 자매



김재영 장로



문희지 자매



박예림 자매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서울 남 선교부



박주혜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박한준 장로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서울 선교부



박휘산 장로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부산 선교부



설경민 자매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템플 스퀘어
선교부



송진규 장로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부산 선교부



오하림 자매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부산 선교부



유아영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이수기 자매

청주 스테이크
온양 지부
서울 남 선교부



이용재 장로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부산 선교부



이재진 장로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이지수 자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대전 선교부



이해봄 자매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서울 남 선교부



이혜원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선교부



이홍비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장원진 장로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정지수 자매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부산 선교부



조성민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선교부



주은규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최호진 장로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대전 선교부

새로 부름 받은 봉사 선교사



이재훈 장로 권미리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복지부



최은영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가족 서비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감독: 배성훈 형제(전임: 방재원 형제)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감독: 구규우 형제 (전임: 정인호 형제)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감독: 최정원 형제(전임: 임부택 형제)